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 (2)*

— 평가부사를 중심으로 —

閔 賢 植

1. 서 론

부사론은 부사가 수식하는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연구와 밀접하다. 따라서 처소부사, 시간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 등의 논의는 처소, 시상, 서법, 접속법주 등의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일련의 부사론을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본고는 그 중에 성상부사의 감각부사에 이은 둘째 연구로 평가부사의 의미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사연구의 일환이나, 부사 중에서도 수적으로 제일 많은 성상부사들이 거의 형용사에서 파생하는 것이기에 성상부사의 근원어인 형용사의 어휘의미론과 상통한다.¹ 그러나 그동안의 부사 및 형용사론은 이런 논의가 적어 대표적인 최현배(1937)나 남기심·고영근(1985)에서의 형용사, 부사의 분류 차원에 머물고 있고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형용사나 성상부사를 관련지어 이들의 유의어나 반의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의미기능, 어휘간 동의경쟁 및 공시적, 통시적 영향관계를 다룬 논의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상부사와 형용사의 유기적 연구로서 중세 성상부사 및 형용사의 유의관계와 어휘사를 등의 경쟁사의 측면에서 밝히는 데 목적을 가진다.

* 본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방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고는 총 800매 분량이 탈고되었으나 게재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 학술지에 나누어 실게 되어 성상부사 중의 감각부사는 국어국문학 107 호에, 나머지 존재성 성상부사, 심리성 성상부사는 국어교육 77, 78호에 실렸음.

¹ 본고에서 다룬 형용사파생의 성상부사는 ‘이/히, 오/우’의 접미사 파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중세의 ‘이/히’파생부사는 현대와 달리 굴절접사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이광정, 1983) 본고는 그 중에 파생부사적 성격이 강한 경우만 다루도록 하였는데 그 구별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2. 성상부사의 하위분류와 연구방법

성상부사의 하위분류는 그 근원어인 형용사 분류와 밀접한데 형용사의 분류로는 최현배(1937, 1971)의 정상형용사, 존재형용사, 비교형용사, 수량형용사, 지시형용사의 분류나² 남기심·고영근(1985)의 감각형용사, 평가형용사, 비교형용사, 존재형용사, 심리형용사의 분류론이 대표적이며 이남덕(1985), 홍사만(1977, 1981, 1990), 김미형(1989) 등의 분류론과 낱말발이론으로 다룬 배해수(1990), 정재윤(1989), 분류어 사전에서 다룬 남영신(1988) 등이 있다. 또한 부사의 하위분류로는 남기심·고영근(1985)이나 학교문법에서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로 분류하여 성상부사의 경우 종래의 상태부사나 정도부사를 포괄하는 범주로 설정하였다.³ 그러나 이 경우 정도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본고에서는 성상부사를 종래의 상태부사와 같게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누고 그 중에 평가부사의 유의어군을 살펴본다.

(1) 감각성 성상부사 (감각부사):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五官감각과 신체내부 기관의 유기감각 의미를 표현한다(볼기, 어드기, 들히, 피외히, 위즈런즈러니...등).

(2) 평가성 성상부사 (평가부사): 주로 眞僞, 是非, 善惡, 美醜...와 같은 가치나 인간성품을 평가 표현한다(眞實로, 올히, 그르,善히, 아름다이, 아니완히...등).

(3) 존재성 성상부사 (존재부사)⁴: 주로 사물이나 사태의 시공간적 존재상태, 물형상태, 외면행동상태, 관계, 수량상태와 같은 존재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묘사를 표현한다(식시기, 自然히, 嚴히, 브즈러니, 게을이, 즈을아

² 성상이란 용어는 최현배(1937)의 경우 “정상형용사”라고 썼지만 “성상부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상태부사라 하였고, 정인승(1956)은 “정상형용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성상부사”라는 용어를 썼다. 단순하게는 형용사의 하위분류가 그대로 그 파생부사의 하위분류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분류자마다 다양한데 앞으로는 이들의 상관관계와 그 하위분류 문제는 따로 상론할 필요가 있다.

³ 남기심·고영근(1985), 학교문법(1985, 1991)의 부사분류는 시간부사와 처소부사를 지시부사로 묶은 점, 정도부사와 상태부사를 성상부사로 통합한 점, 부정부사를 따로 설정한 점이 정인승(1956)의 체계와 같다.

⁴ 본고의 존재성 성상부사는 종래의 ‘있다, 없다, 계시다’와 같은 존재사 관련의 좁은 개념만이 아니라 사물의 시공간적 존재상태, 외면 행동상태, 수량이나 관계 상태 등 사물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묘사하는 어군을 모두 가리키며 그 영역이 성상부사 중에서 제일 넓고 다양하다. 이보다 더 적절한 용어가 아쉬우나 잠정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비, 親近히, 썰리, 느지, 머리, 갓가비, 만히, 해, 저기, 노피, 두루, 혼뵘, 달이…등).

(4) 심리성 성상부사 (심리부사): 喜怒哀樂과 같은 내면적, 주관적 감정, 심리나 의도를 표현한다(슬피, 깃비, 어엿비, 므시여이, 민비, 도히, 슬히, 부러…등).

이 중에 본고에서 다룰 평가부사는 평가형용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평가”(evaluation)라는 용어는 어떠한 기준에 따른 사태의 판단작용이기에 그 판단기준을 “가치”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들을 가치형용사, 가치부사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평가라는 용어가 “묘사, 판단, 표현” 등의 용어와 유사한 용어로서 위 (1)~(4)의 모든 표현이 사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라고까지 볼 수 있어 “평가”아닌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기 쉽다. 그래서 (2)류를 가리키는 용어로만 쓴다면 “평가”라는 용어를 “가치평가”의 준말로 이해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value)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다. “가치론”은 철학, 윤리학의 중요 주제이기에 여기서 상론할 여유는 없으나 통상 “①인간 도덕의 공동 목표인 眞善美, ②인간육구에 따른 効用價値인 好惡, 利不利, 可否, 難易 등의 개념”을 가치라고 하므로 평가형용사, 평가부사도 이러한 통념에 따라 “인간 性品이나 事物, 事態”의 “眞僞, 善惡, 美醜, 是非, 貴賤, 好惡, 可否, 難易” 등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어근으로 제한하여 살핀다. 이러한 평가형용사나 부사는 주관성이 강한 심리형용사나 부사에 비해서 보다 객관적 판단을 지향하는 어휘이지만 가치평가라는 것도 인지심리의 산물이라 주관성이 전연 배제되기는 어렵다.

이들의 의미분석을 위하여는 Ullmann(1957, 1962)에서 제시되고 중세국어에 대하여도 남성우(1986), 줄고(1991a) 등에서 적용된 바 있는 유의어 분석법인 代置法(substitution test), 反意語 對比法(antonymy), 羅列法(arrange, collocation)이 기본 방법론이 된다. 또한 중세 성상부사 (및 그 근원형용사)의 동의경쟁과 상호 영향관계의 변천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중세 자료를 4기로 나누어 1기 (15세기 중반; 1447년 龍飛御天歌~1460년대 佛經諺解類), 2기 (15세기 후반; 內訓, 杜詩諺解, 金剛經三家解 등), 3기 (16세기 전반;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翻譯小學 등), 4기 (16세기 후반; 小學諺解, 四書諺解 등)로 나누어 변천을 파악하며 미처 미확인된 어휘는 <이조어사전> <고어사전>을 참조하였다. 그밖에 翻譯老: 老諺, 翻譯小: 小諺의 대비와 같은 시대를 달리한 문헌의 同一翻譯 對比法, 성상부사 유의어들이 공기하는 서술용언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변별하기 위해 공기관계를 추적하는 文獻資料 歸納法, 동의경쟁의 정도측정을 위한 유의어간의

語彙頻度 統計法 등도 이용하였다.

끝으로 유의어군을 기술함에 유의성이 큰 것끼리는 []으로 묶었으며 중세 문헌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형용사형이나 파생부사형이 한쪽만 확인되는 경우는 *표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 당대에 쓰이지 않은 어형파생상의 빈칸어형이거나 조사상 아직 미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중세문헌의 약호표시는 통상 관례대로 유창돈 <이조어사전>식 약호를 준용하였다.

3. 평가부사의 유의어와 반의어

평가부사의 유의어와 반의어군은 전술한 여러 가치기준을 眞僞, 是非, 善惡, 美醜, 貴賤, 可否, 難易 등의 일곱 가치범주로 묶어 나누어 살펴도록 한다.

3. 1. 眞僞性 平價副詞: [고디~고디시기~진딧, 진짓] (眞, 實) ~眞實히, 實히, 實다비 (實)↔거즈리² (虛, 僞)~속절업시, 실업시 (虛, 空, 浪, 漫) ~훈갓² (空)~虛히 (虛)

이들은 眞實, 虛僞性에 관련된 부사들로 眞과 實, 虛와 僞는 구별되기도 하나 한자어에서도 유의어 인접현상에 따라 眞實, 虛僞라는 단어로 쓰여 여기서도 묶었다. 먼저 ‘고디, 고디시기’는 ‘곧다, 고디식하다’의 부사들로 이들은 동일어족으로 보인다. ‘고디’는 다음 a처럼 ‘곧다’의 뜻 “直”이 “眞實”의 뜻으로 확대된 것이다. b’은 ‘고디’의 뒤에 ‘거즈디 않다’를 덧붙여 ‘곧다’의 반의어는 ‘거츨다’임을 입증한다. ‘곧이’가 ‘곧이 곧대로 듣다’처럼 주로 ‘듣다’와 공기하는 현대의 경향은 중세에도 있어 b는 이런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c처럼 공간직선상 “곧게”의 뜻인 ‘고디’도 쓰여 현대의 ‘곧이’ 보다는 의미장이 컸다.

(1) a. 直: 고들 디(훈몽 하29) 貞: 고들 덩(훈몽 하25)

b’ 너희 부뎡 마를 고디 드르라 거즈디 아니하니라 (석13: 47a)

² 僞王 고디 드러 잇거늘(삼강, 충30a)

c. 고디 셔도 머리 짜해 드리코(直立頭垂地, 금삼3: 22a)

한편 ‘고디’가 “사실 그대로”라는 뜻인 점에서 인간성품의 평가어로 “진실하다, 정직하다”의 뜻인 ‘고디식하다, 고디시기’는 이 ‘고디’가 성품평가어로 전이되면서 형태파생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식-’의 정체는 불명하나 ‘고·디’의 성조가 ‘고·디식-’의 ‘고디-’와 같은 점이 이런 추정의 실마리이다. 다음 d’에는 원문도 “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의 유의어로는 e처럼 ‘츨답다, 츨되다’의 부사가 예상되나 미확인된다.

- d¹ 내 고디시기 너드려 널오마(我老實對分說, 번노 하26b)
² 부드러운이 和코 고디시그닌(柔和質直者, 법5: 166a)
 e. 眞: 츨진(유합 하18, 石千17) 莊: 츨다올 장(유합 하3) 츨뉘 장
 (石千41)

다음에 ‘고디, 고디시기’의 유의어로는 한자어 ‘진딧, 眞實히, 實히’가 있다. ‘진딧’은 중국어 ‘眞的’의 차용어(이기문(1965), 남풍현(1968))로 ㅅ이 항상 붙으면서 대개의 예가 다음 a처럼 명사를 수식하여 관형사의 성격이 크나 b, c처럼 용언 앞에 온 경우도 있어 體言修飾性 副詞인데 중세 3, 4기에는 c, d처럼 ‘진짓’으로 변한다. c는 ‘진짓’의 원문자가 ‘實’이라 ‘實히’ 등 과도 유의적이다. 한편 e처럼 용비어천가에서도 보이는 ‘짐쫓’은 ‘진딧’이 “眞實인양 꾸며→부러, 故意로”라는 뜻으로 분화되면서 ‘짐쫓’으로 형태도 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때 ‘쫓; 貌’에 견인되었을 것도 추정된다.

- (2) a. 眞金은 진딧 금이라(월7: 29a); 명사를 수식.
 b. 乃終 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월1: 36a); 용언명사형을 수식.
 c. 가프리사 진짓 갑시라(遷的是實, 번노 하22a); 명사를 수식.
 d. 이 사람이 위하야 원슈를 갑고져 하니 진짓 울 흔 선비라(欲爲報 九眞義士也, 소연4: 31a); 용언 ‘울하다’를 수식.
 e. 짐쫓 업게 하시니(乃故齊之, 용64)

다음에 ‘眞實히~實히~實다비’는 사태의 객관적 평가를 보이는데 동사 ‘보다’와 공기한 다음 a, b에처럼 유의적이다. 이와 달리 ‘眞實로, 實로’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여 樣態副詞로 처리되는 점이 다르다(고영근(1987: 135)).

- (3) a¹ 眞實히 生死 큰이롤 爲하야(眞實爲生死大事, 몽산19a)
² 제 ㅁ스미 經이 업고 實히 보아 實히 行하면 제 ㅁ스미 經이 이 시릴썸(自心則無經實見實行自心則有經, 금강序9a)
 b¹ 智慧力은 諸法 實相을 實다비 잘 볼씨라(월7: 45a)
² 實다이 보아(如實見之, 법3: 27a)
³ 實다히 아디 ㅁ홀썸(不如實知, 능4: 13b)

다음은 이들의 반의어를 살펴본다. 이미 앞 (1)b'에서처럼 ‘곧다’의 반의어로 ‘거출다’가 확인된 바 있다. ‘거출다’는 ‘거출다’; 荒과 ‘거출다’; 虛, 僞, 妄로 분화, 구별되며 성조도 다르다. 부사는 ‘거츨리’가 있다. 중세의 ‘거쫓; 僞’도 ‘거출다’와 동일어원어일 것이다. ‘거츨리’의 유의어로는 “공연히, 헛되이”라는 뜻의 ‘속절업시; 虛, 空, 浪, 漫’, ‘훈갓; 空’이 있는데 한자

어 虛空, 空虛에서처럼 한자어에서도 虛와 空은 유의인접어이다.

- (4) a. 거츠리 풀히야 正히 아디 못하야(월9: 8b)
 b¹ 末法은 속절업시 似量이라 實업스니라(월9: 7b)
² 해 드로몰 속절업시 잘카낭하야(虛驕多聞, 능1: 3a)
³ 셋거 흐르논 프리 속절업시 끊겨리 솟는다(交流空涌波, 두14: 33a)
⁴ 글 가져다가 속절업시 傳히디말라(將詩莫浪傳, 두23: 43a)
⁵ 사르미 일와 音信스글월왜 속절업시 괴외흐도다(人事音書漫寂寥, 두14: 19b)
 c. 올 人日에 흐갓 서르 스랑흐노니(今年人日空相憶, 두11: 4a)

‘속절업시’는 위 b¹ 예문에서 뒤에 ‘實업스니라’라고 부연되어 ‘實업시’와 의 동의성을 입증한다. b²는 원문도 ‘虛’이며 杜諺에서는 ‘空, 浪, 漫’의 역어로 많이 쓰였는데 ‘속절’의 정체는 불명하다. ‘흐갓’은 어원상 ‘흐(一)+갓(物)’인데 이것이 “헛되이”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거츠리’와 ‘속절업시, 흐갓’과의 관계는 대체로 “虛”의 뜻을 공유하면서 ‘거츠리’는 “僞”, ‘속절업시, 흐갓’은 “空”의 뜻이 강조된다. 이들의 한자 유의어로는 ‘虛히, 實업시’가 있다. 특히 ‘實업시’는 ‘속절업시’와 ‘-업시’구조로서 ‘實=속절’의 관계도 암시한다.

- (5) a. 峽關스險흐 길히 이제 虛히 머니(峽關險路今虛遠, 두8: 41a)
 b. 求命은 일홈 求홀씨니 實업시 일홈썬 求홀씨라(석13: 35b)

3. 2. 是非性 平價副詞: 올히(是)~바르, 正히(正)↔외오(非, 錯, 誤)~그르(誤, 錯, 差)~어그르치, 어긋르치(違, 錯)

이들은 是非, 正誤성에 관련된 부사이다. 먼저 ‘올하다’의 부사 ‘올히’는 “오른쪽으로”의 ‘올히’; 右과 “옳게”의 ‘올히’²; 是’가 있는데 右→是로 분화된 것이다. 그 밖에 ‘올흔대로’도 발견된다.

- (1) a. [올히’; 右] ㅅ암 서린듯하야 두려버 올히 도르시며(월2: 58a)
 b. [올히’; 是] 王이 닐오디 너희가 세올야으로 올히 하야(석24: 25a)
 c. 상위 날드려 무러시든 올흔대로 열스와사하려 그셔사하려(主上問我當以實告爲當諱之, 번소9: 43a); 원문이 ‘實’이라 ‘올히’류가 前項의 ‘고디, 實히’류와도 유의적임을 보임.

다음에 ‘바르다; 正’가 공간의미에서 “옳고 바르게”라는 도덕의미로 파생

되어 부사 ‘바르’가 예상되나 미확인되며 “바로, 즉시”라는 시간어 용례만 확인된다. 오늘날 ‘바르’의 현대형인 ‘바로’는 도덕의미(예: 마음을 바로 먹어라), 시간의미(예: 바로 떠났다), 공간의미(예: 물건을 바로 놓아라)에 두루 쓰인다. 오히려 중세문헌에서는 漢字 對當語인 ‘正히’가 다음 a처럼 도덕의미의 “옳고 바르게”로 빈도높게 쓰였다. 또한 ‘正히’는 a처럼 공간 및 도덕의미의 “바르게”라는 뜻 외에 b처럼 “분명히, 확실히”라는 양태부사의 뜻도 지녀 양태부사 ‘분명히, 확실히’와도 유의적이며 오늘날 ‘正히 영수함’ 등의 표현에 남아있다. 특히 다음 b^{2,3}은 時節 표현문맥에 쓰여 “바야흐로 확실히”의 뜻인 바 부사 ‘보야흐로’와도 유의적이니 이는 ‘正히’의 “분명히”라는 뜻이 의미확대된 결과이다.

- (2) a' 正覺은 正히 알씨니 그르 알면 外道이오 正히 알면 부테시니라 (월1: 51a); “옳고 바르게”라는 도덕의미임. 반의어 ‘그르’와 대비됨.
- ² 使君의 두 거믄 蓋ㅣ 여흘 너튼디 正히 서르 브덧도다(使君雙阜蓋灘淺正相依, 두15: 27a); “똑바로 바르게”라는 공간의미임.
- b' 부텨 智慧를 몰내 알리며 正히 十方에 마득하니(석13: 41b)
- ² 이제 고지 正히 하거니라(如今花正多, 두15: 31a)
- ³ 정히 박핑이 텨 시저리로다(正是放空中的時節, 번박 상17b)

다음은 이들의 반의어를 본다. 위 (2)a'은 ‘正히↔그르’임을 보이는데 ‘그르’는 ‘그르다’의 어간형으로 원문자는 ‘誤, 差, 錯’등이다.

- (3) a. 將帥의 ㅍ들 그르 일흐면(誤失將帥意, 두8: 7a)
- b. 거긔 그르디 아니 하리라(庶乎其不差矣, 번소8: 31a)
- c. ㅂ븐 後를 困하야셔 그르디 아니 하노뇨(不因忙後錯了, 소언6: 49a)
- d. 誤: 그를 오(유합 하27)

한편 ‘올흐다’의 반의어로 ‘외다’가 있음을 다음 a가 입증한다. ‘올흐다’와 ‘외다’가 반의관계임은 이들의 관형형 ‘올흐, 윈’이 좌우방향 지시어인 점에서도 관련된다. 또한 ‘외다’의 원문자는 주로 ‘非’인데 d, e처럼 ‘錯, 誤’도 보여 위 ‘그르다’와도 유의성이 컸다. 따라서 ‘그르다’는 “錯, 誤”를, ‘외다’는 “非”를 주의미로 하되 ‘외다’가 부의미로 “錯, 誤”의 뜻도 수형하여 ‘그르다’를 상당히 내포하는 상태였다. 부사 ‘외오’는 ‘올히^{1,2}’가 나뉘듯 “左로”란 뜻의 ‘외오’과 “非, 誤”란 뜻의 ‘외오’로 나뉜다.

- (4) a. 올흐니 외니 이시면 어즈러워 밋슴 일후미라(有是非紛然失心, 능2: 59a)

- b. [외오¹] 외오 쓴 조히 노호로(左撚紙索, 구방 상61a)
- c. [외오²] 忠臣을 외오 주겨늘(擅殺忠臣, 용106)
- d. 제 외오라토타(自誤也, 법2: 7a)
- e. 마섯 사르미 외오 楊雄의 집과 가졸비느니(旁人錯比楊雄宅, 두7: 1b)

끝으로 주로 “違”의 역어이면서 “戾, 蹉, 錯” 등의 역어로 쓰인 ‘어긋다’다. ‘어긋다’도 ‘그르다, 외다’가 “錯”의 뜻을 갖는 점에서는 부분유의를 보 이는바 그것의 부사 ‘어긋치, 어긋르치’도 ‘그르, 외오’와 유의관계이다.

- (5) a. 陰陽이 혼변 어긋르치 亂호니(陰陽一錯亂, 두16: 65b)
- b. 生植호엿는 萬物이 半만 어긋르치 드외니(植物半蹉跎, 두16: 65b)
- c. 넷 이룰 사랑호야 禮를 어긋르치 아니호눗다(懷舊禮無違, 두24: 48b)

3. 3. 善惡性 平價副詞: ①이대, 善히(善)~잘(善, 能)~도히(好, 利, 善)~利히(利)~어디리(賢, 善)~어그러이(寬)~어위키(寬, 廣, 浩, 濶)
 ②이대↔모디리, 모딜오, 흥히(惡, 凶, 暴, 虐, 酷)~구지(惡, 醜, 歹)~아니환히, 아니완히(惡, 暴)~사오나이(拙, 劣, 薄, 弱, 惡)
 ③도히↔구지(惡, 醜, 歹)~모디리, 모딜오~흥히(惡, 凶)~난비¹*(惡)

이들은 人性과 사건의 善惡, 好惡, 利害성을 표현한다. “利害”가 “善惡”과 같이 묶임은 국어에서 ‘좋다’라는 단어가 “善惡”이나 “利害”의 표현에서 중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①은 ‘이대’를 중심으로한 유의어이며 ②는 ‘이대’의 반의어군, ③은 ‘도히’의 반의어군을 구별한 것이다.

- (1) a. 이든 일 지스면 이든 더 가고 모든 일 지스면 모든 더 가느니라(남명 상9a); ‘인다’와 ‘모딜다’의 반의관계를 보임.
- b. 方樂을 볼기 아라 한 病을 이대 고티더니……이틀 니르산 良醫의 잘 고토타(월17: 16a); ‘이대’와 ‘잘’이 동의성을 보임.
- c. 醫員이 드외사른 상네 사르물 이대 救호사미라(爲醫常善救人也, 능5: 38b)
- d. 王孫은 귀호 모딜 이대 安保호라(王孫善保千金軀, 두8: 2a)
- e. 다 이대 잇더라. 그리 이대 이시면(都安樂來那般好時, 번노 하4a)
- f. 조스르뵈요미 그 므슴 홀히 뿌매 잇느니(妙在善用其心, 몽산 18a)

‘인다’의 부사 ‘이대’는 언해에서 대개 ‘善’의 역어이며 e처럼 ‘安, 好’의 뜻도 지녀 ‘便安히, 도히’와도 유의적이다. 한자 유의어로는 f처럼 ‘홀히’가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고유어 유의어는 ‘잘’이다. b는 같은 내용의 본문과 협주문으로서 ‘고티다’를 ‘잘, 이대’가 같이 수식하여 동의성을 입증한다. ‘이대’는 1기 자료에 많이 보이고 이후에는 빈도가 낮는데 釋詳과 月釋에서 ‘잘’과 호응한 용언을 비교하면 ‘이대’는 ‘듣다’ (석13: 47a), ‘濟度하다’ (석13: 4b), ‘난호다’ (석23: 54b), ‘갓다’ (월1: 56b), ‘스랑하다’ (월9: 9a), ‘對答하다’ (월17: 42a), ‘오다’ (월17: 17a) 등 광범위한데 ‘잘’은 ‘하다’ (석6: 30b), ‘보다’ (월1: 34a), ‘내다’ (월9: 21a) 등 범위가 좁다. 또한 ‘이대’는 ‘이대 順히’ (월8: 63a), ‘이대 便安히’ (월17: 17a) 처럼 또다른 부사를 수식하나 ‘잘’은 그런 예가 없고 용언과의 결합력이 커 특히 ‘하다’와 빈도 높게 써 ‘잘하다’로 복합동사화했다. 다음 c는 ‘잘’이 ‘能히’와도 유의관계임을 보여준다.⁵

- (2) a. 幻術을 잘 하더니(석6: 30b)
 b. 부텃 智慧에 잘 드르샤(석13: 4b)
 c. 能: 잘흐 능(石千8)

다음에 이들의 유의어로는 ‘똥다’의 부사 ‘도히; 好’가 있다. 대개 ‘도히’는 ‘好’의 역어로 쓰였는데 다음 a는 ‘善’의 역어라 ‘이대’와도 유의적이며 b도 ‘善’의 釋이 ‘똥다’임을 보여 ‘똥다’와의 동의성을 입증한다. 또 c는 ‘利’의 역어로 쓰여 d의 ‘利히’와도 유의적이다. 그런데 현대어 ‘좋다’가 ① ‘좋다↔나쁘다’, ② ‘좋다↔싫다’ 처럼 양면 반의관계이듯 ‘똥다, 도히’도 ①가치평가의 관점에서는 e처럼 ‘남보다, 남비’, ‘긋다, 구지’, ‘모딜다, 모디리’의 반의어도 되고(평가부사 ‘도히’) ②심리묘사의 관점에서는 “싫다”의 ‘싫다, 슬히’, ‘아철다, 아쳐’와 반의어도 되어(심리부사 ‘도히’) 양면성을 지닌다.

- (3) a. 善逝世間解는 부텃 功夫에 도히 올아가샤(석9: 3b); 善과 ‘도히’가 대응
 b. 善: 도흐 선(훈몽 하31) cf. 善: 어딜 선(石千10)(유합 하2)
 c. 利養은 도히 칠씨니(석13: 36a)
 d. 妙法을 精히 디니샤 너비 施하샤 利히 引導하산 자최라(월17: 74b)
 e¹ 물읷 有情의 轔거시 다 喃븐 줄 업기호리라(석9: 5a)

⁵ 현대어의 ‘잘’은 ①利不利의 관점에서 이익과 관련된다는 “이익성” (예: 결혼 잘했다), ②동작의 “이상화” (예: 잘 만든다), ③“자주” (예: 잘 싸운다), ④“습계” (예: 잘 깨진다)의 뜻을 가지는데 (양인석, 1975) “이상화”를 “우수성”으로 바꾼다면 ‘잘’의 의미자질은 [+이익성, 우수성, 고빈도성, 용이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예는 중세의 ‘잘’에서도 확인된다.

² 도커나 긋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디 아니커나(석19: 20a)

³ 모딘 일 보고 도훈 일 닷 마니논(월1: 46b)

다음으로 ‘이대, 잘, 도히,善히’는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인성평가에도 쓰여 이때의 유의어로 ‘어딜다’의 부사 ‘어디리’가 있다. 원문자는 대개 ‘賢’인데 이는 “人性的 善함”을 뜻한다.

(4) a. 王도 어디르시며 夫人도 어디르시며(월2: 12a)

b. 어디리 護持 홀씨라……일후미 어디리 護持라(賢護…名賢護, 능5: 40a)

원래 ‘이대, 잘, 도히’가 가치평가나 인성평가의 기능을 다 지녀 의미적용 범위의 부담이 크므로 “善, 賢”의 인성평가 전담어로 따로 쓰인 것이 ‘어딜다, 어디리’이다. 현대의 ‘어질다’는 “착하다, 인자하다”는 뜻으로 [+인간]의 명사에만 호응하나 중세에는 다음 (5)처럼 [-인간]에도 호응하고 그 뜻이 “善, 好”에 가까와 ‘인다, 둥다’와의 유의성은 이런 점에서도 입증되며 다음 字書類의 釋에서 ‘善: 어딜 선, 能: 어딜 능’의 예도 ‘어딜다’가 ‘善, 能’의 의미도 지님을 입증하므로 중세의 ‘어딜다’는 현대어 ‘어질다’보다는 의미장이 커서 ‘인다, 잘하다, 둥다’와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5) a. 이 蓮花는 어디로미 아니니이다(석11: 27b)

b. 多摩羅跋은 널오매 어디러 떠업슨 좁이오(多摩羅跋云賢無垢香, 법6: 41a)

(6) a. 善: 도홀 선/好: 도홀 호/能: 어딜 능/賢: 어딜 현(훈몽 하31, 25)

b. 善: 어딜 선/好: 도홀 호/能: 잘홀 능/賢: 어딜 현(石千10, 8)

c. 善: 어딜 선/好: 도홀 호/能: 룡홀 룡/賢: 어딜 현(유합상1, 26 하2)

‘어디리’의 유의어로는 현대어 ‘너그럽다’의 고행인 ‘어그럽다; 寬’의 부사 ‘어그러이’가 예상되나 미확인되며 ‘어위다; 寬’와 ‘크다; 大’의 합성어인 ‘어위크다; 寬, 廣, 濶, 浩’의 부사 ‘어위키’도 해당되나 “널리”라는 뜻의 공간 의미 예만 문증되고 인성평가의 예는 안보인다. ‘어디리’와 ‘어그러이, 어위키’의 차이는 원문자 ‘賢: 寬’의 대비가 보여주듯 전자는 “善하고 賢明함”에 초점을 두며 후자는 “도량이 넓고 큼”에 초점을 둔다.

(7) a. 어그러오디 식석게 하며(寬而栗, 소언1: 10a)

b. 이 존홀 사르문 才思이 어위크니(若人才思濶, 두22: 31b)

c. 어위키 后士이 저젓도다(泐葬后士濕, 두22: 51a)

다음에 지금까지 살핀 ‘이대, 잘, 도히, 어디리, 옹히, 리히’의 반의어군으로는 먼저 “善惡”의 관점에서 ‘이대’의 반의어로 ‘모딜다; 惡, 暴, 虐, 酷, 毒’의 부사 ‘모디리’ 및 ‘모딜오’가 있는데 이는 앞 (1)a에서 ‘인다↔모딜다’로 예증된 바 있다. 또한 다음 d처럼 한자어 ‘홍히’도 ‘모디리’의 유의어로 쓰였다.

- (8) a. 增上慢엿 사르미 모디리 구지즈며(增上慢人惡罵, 법1: 82b)
- b. 더위 내 애를 모딜오 흥는다(炎蒸毒我腸, 두10: 20a)
- c. 惡: 모딜 악(훈몽 하31) / 暴: 모딜 포(훈몽 하26) / 虐: 모딜 학(유합 하3) / 酷: 모딜 혹(유합 하55)
- d. 그 어미 모디리 보채유물 저기 그치더라(其母少止凶虐, 번소9: 70a)
 → 그 어미 홍히 보채음을 적어 그치니라(, 소언6: 64b)

‘모디리’의 유의어로는 ‘아니환하다, 아니완하다; 惡’의 부사 ‘아니환히’도 있었다. ‘아니완하다’는 3기에서나 보이므로 1기부터 보이는 ‘아니환하다’의 ㅎ탈락의 결과이다. ‘모딜다~아니환하다’는 인성평가에는 공통으로 쓰여 [+인간]의 명사와 공기하는데 [-인간]의 명사일 경우는 ‘아니환하다’는 다음 a처럼 ‘내(嗅), 소리’ 등과, ‘모딜다’는 위 (8)b처럼 ‘더위’와 공기한 예가 있다. 의미영역은 ‘모딜다’가 “惡, 暴”외에 “虐, 酷”처럼 “사납고 지독하게”의 뜻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아니환하다’는 “惡, 暴” 위주로만 쓰였다. ‘아니환하다’는 ‘훤하다; 明’ (중세에는 ‘환하다’는 없고 ‘훤하다’만 쓰임)에 부정부사 ‘아니’가 붙은 부정어법의 ‘아니 훤하다’가 합성되면서 모음 조화로 인해 ‘훤→환’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로는 부정부사 ‘아니’와 성조도 같고 의미론적으로 “不+明→暗→惡”으로의 의미파생이 타당하며 중세에 조어방식상 ‘아니한스시, 아니한던, 아니한뵈’와 같은 ‘아니-’형 단어들 이 있었기 때문이다.

- (9) a. 伊蘭은 내 아니환훤 남기라(능3: 45b); 냄새가 나쁜 나무라는 뜻.
- b. 모미 뷔트러 아니환훤 소리 흥고(惡聲, 구간1: 94b)
- c. 간난훤 전초로 아니환훤 사르미 닛느니라(生出歹人來, 번노 상 27a)
- d. 일의노논 아히 아니환히 누워 안홀 불와 띄여버리는다(嬌兒惡臥踏裏裂, 두6: 42b)

그런데 “사납다”의 뜻으로는 중세의 ‘사오납다, 사오나이’도 있었는데 중

세의 ‘사오납다’는 1, 2기인 15세기와 3, 4기인 16세기의 의미장이 달라 변화를 입었다. 1, 2기의 ‘사오납다’는 현대의 ‘사납다’와 뜻이 달라 다음 예처럼 “拙劣하다, 粗惡하다, 거칠다, 弱하다”의 뜻으로 원문자도 주로 ‘拙, 劣’이고 그의 ‘薄, 弱’이 확인될 뿐 ‘惡’의 역어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10) a. 凡心이 앞 智에 사오나오며(凡心劣於前智, 원上二之三40a)
 b. 저기 사오나이 호되 아를디니(稍拙, 원下二之一47b)
 c. 漂然히 사오나이 노로매 마가타니(漂然薄遊倦, 두16: 4b)
 d. 둥그하야 미기 사오나와(中氣脈弱, 구간1: 39b)

다음 예도 ‘어딜다; 賢’의 반의어가 ‘사오납다; 劣’임을 보여주는 예로서 이때의 ‘사오납다’는 현대의 “사납다”가 아닌 “庸劣하다, 어리석다”로 풀어야 하는 바 고어사전들에서 ‘사오납다’를 현대어의 뜻 그대로 적용하여 “사납다”로 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적어도 1, 2기의 ‘사오납다’는 현대의 “사납다”로 풀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 e. 夫人아들 長生이 사오납고 녀느 夫人넷 아들 네히 照目과 聰目과 調伏象과 尼樓왜 다 어디더니(월2: 4b); ‘사오납다↔어딜다’를 입증함.
 cf. 長生인 不肖할씨……尼樓는 賢할씨(월천11)

그후 ‘사오납다’가 “포악하다”의 뜻으로 바뀐 것은 “拙, 劣, 薄, 弱” 등에서 “暴惡”의 뜻으로 전이된 것과 더불어 ‘아니완한다’의 쇠퇴로 ‘아니완한다’의 “惡, 暴”의 의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이니 3, 4기의 자료에서는 ‘사오납다’가 ‘惡’의 역어로 잘 쓰였기 때문이다.

- f. 내 사오나온 일란 고티고 ㄴ미 사오나온 일란 고티디 마를디니(攻其惡無攻人之惡, 번소8: 15a)
 →그 사오나음을 다스리고 사름의 사오나음을 다스리디 말올디니(攻其惡無攻人之惡, 소연5: 94b)

3기 翻老의 다음 ‘아니완한다’가 근대 老諺에서 ‘사오납다’로 바뀐 것도 ‘아니완한다’의 쇠퇴가 ‘사오납다’의 의미장을 “惡, 暴”으로 전이시킨 것임을 추정케 한다.

- g. 엇디하야 이런 아니완한 사름이 잇는고(爲甚麼有言般的歹人, 번노상26b)
 →엇디하야 이런 사오나온 사름이 잇는고(爲甚麼有言般的歹人, 노연상24a)

이들의 유의어로는 ‘긱다, 구지; 惡, 醜, 歹’도 있다. ‘긱다’는 다음 a처럼 ‘똥다’의 대표적 반의어인데 b는 ‘이대↔구지’의 예도 보여 ‘도히~이대’의 유의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 (11) a¹ 도커나 긱거나 아롬답거나 아롬답디 아니커나(석19: 20a)
 2 덜덜고 구저(麤惡, 능1: 42b)
 3 도흐며 구즈물 예셔 다 보며(好醜於此志見, 법1: 69b)
 4 도쿠주블 묻그리 햏야(석9: 36a); “좃고 긱음; 吉凶”
 b. 내게 구지 햏 싸르매 내 또 이대 호리라(於我惡者吾亦善之, 영가 하121b); ‘구지↔이대’의 반의어 관계도 보임.

또다른 유의어로는 ‘똥다↔남브다’의 관점에서 ‘남브다’의 부사 ‘남비’이 예상되나 미확인된다. ‘남브다’는 “①나쁘다”의 뜻인 ‘남브다’외에 다음 b가 “잠이 不足하다”로 해석되듯 “②不足하다”의 뜻으로 전이된 ‘남브다’가 있음이 현대와 다르다. 후자의 부사 ‘남비’는 확인되어 이것은 ‘좃래, 足히’의 반의어가 된다.

- (12) a. [남브다¹] 물읏 有情의 ٱ좃거시 다 남브 줄 업기호리라(석9: 5a)
 b. [남브다²] 그리면 줌 남브디 아닐거시라(那們時不渴睡, 번박상21b)
 c. [남비²] 彈指햏 스시예도 德 심고뎡 햏나 남비 너기샤(월10: 4a)

특히 c를 고어사전들에서 “나쁘게”의 뜻으로 풀이했으나 위 예문은 淨飯王이 德行을 심었으나 “不足히”어졌다는 뜻으로 보아야 자연스러우므로 사전들의 풀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3. 4. 貴賤性 平價副詞: 貴히(貴) ~尊히, 尊重히(尊) ~重히(重) ~보비로이(寶)↔놀아이, 賤히*(賤) ~낮가이(低, 賤) ~므더니(慢, 蔑, 忽, 輕) ~가비아이(輕) ~업시, 업슈이(侮, 輕, 慢) ~디마니(忽, 慢, 遲), ~輕히, 輕賤히, 경만히(輕, 慢)

이들은 貴賤, 輕重性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사이다. 먼저 ‘貴히, 重히, 尊히, 尊重히, 보비로이’ 등이 유의어를 이루는데 이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불명하다. 이들은 대개 다음 예처럼 후행 서술어로 ‘너기다’와 공기한다.

- (1) a. 상네 坐禪을 貴히 너겨(월17: 41b)
 b. 天上이며 人間이며 모다 尊히 너기스불썌 世尊이시다 햏니라(월9: 13b)
 c. 恭敬햏며 尊重히 너겨(월9: 39b)

d. 이 마웁 사르미 너히 重히 너기돌 아니 하느니(邦人不足重, 두15: 3b)

e. 모돌 보비로이 너교디 구슬마티 하야(寶其身體, 내훈2: 2a)

이들의 반의어군으로는 먼저 ‘貴하다, 貴히’의 반의어인 ‘놀압다, 놀아이; 賤’와 이의 유의어인 ‘눗갑다, 눗가이; 低, 卑, 賤’가 있다. 전자는 “날것, 자연의 것”을 천하게 보는 의미론적 인식에서 ‘놀(生)’에 ‘-압다’가 첨가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눗다’의 ‘-갑다’파생어이다. ‘놀압다~눗갑다’의 의미차이는 ‘놀압다’는 “賤”으로만 쓰이나 ‘눗갑다’는 “賤”외에 이 단어 원 의미인 공간의미의 “낮다; 低”로도 쓰인 점이다. 또한 한자어로는 ‘賤하다’가 쓰여 ‘賤히’도 예상되나 미확인된다. 또한 ‘가비압다’의 부사 ‘가비아’도 증량표현 외에 “비천하다”는 뜻의 인성평가어로 쓰여 ‘놀아이’와 유의관계이며 아래 (2)c는 서로 유의어 인접현상도 보인다.

(2) a. 貧窮 하며 놀아 놀며(월17: 13b)

b. 貴 하며 놀아 오며(貴賤, 법1: 218a)

c. 가비아 놀아이 너기며(輕賤, 법2: 163a, 165a)

(3) a. 눗가 보 貧窮 하 사르미어나(월21: 139b)

b. 눗가이 너기디 아니 하며(不賤, 금강36a)

(4) a. 世間애 艱難 하며 가스떨며 貴 하며 賤 하며 기리 살며 덜이 살며(월13: 59b)

다음에 “괜찮다”는 뜻의 ‘므던하다’가 부사화하면서 사람을 홀대한다는 뜻의 “소홀히”로 변한 ‘므더니, 므던히; 慢, 蔑, 忽, 輕’가 있는데 역시 ‘너기다’와 공기한다. 따라서 ‘즈올아이, 親近히’와는 반의어 관계이며 親하게 대함은 貴하게 대함과 유의적이라 ‘貴히’와도 반의어 관계이다.

(5) a. 慢 은 놈 므더니 너길씨니(석9: 13b)

b. 蔑 은 므던히 너길씨라(법5: 48b)

c. 날 므더니 너기던 전초로(석19: 34b)

다음에 ‘없다’의 파생동사인 ‘업시오다, 업시우다; 侮, 傲, 輕, 慢’의 부사 ‘업슈이’나 ‘없다’의 부사 ‘업시; 無’도 이들의 유의어로서 ‘너기다’와 공기한데 원문자 ‘侮, 傲’에서 알 수 있듯 ‘눗가이, 므더니’류보다 侮蔑의 성격이 강한 표현으로 보인다.

(6) a. 내 너희들홀 마장 恭敬 하야 업시오 돌 아니 하노니(석19: 29b)

b. 내 너희들홀 업시우 디 아니 하노니(석19: 30a)

- c. 禮는 ……침노하며 업슈이 너기기를 아니하며(禮…不侵侮, 소언3: 6b)
- d. 프데 流沙磧^스너글 업시너기더라(意無流沙磧, 두24: 11b)

끝으로 ‘디만하다’의 부사 ‘디마니’도 ‘므더니’의 유의어이다. ‘디마니’는 “동작의 느림, 게으름”을 뜻하여 ‘게을이’와 유의적이면서 “소홀함”의 뜻도 지녔는데 ‘너기다’와는 공기하지 않고 ‘하다’와 공기한다. ‘디만-’은 한자어 ‘持慢’에서 온 것이다(남풍현, 1968: 50). 이상의 한자유의어로는 ‘輕히, 輕賤히, 輕慢히’가 발견된다.

- (7) a. 내 太子를 섬기스보더 하늘 섬기습듯하야 흐번도 디만호 일 업수 니(석6: 4a)
- b. 너희 디마니 혼 이리 잇느니(월2: 6b)
- c. 약을 디마니 하면(用樂遲緩, 구방 상31a)
- (8) a. 른득 내 지식에서 輕히 하야(輕於己之子, 소언5: 75a)
- b. 이 다 輕賤히 너기논 이리어늘(此皆輕賤之事, 금삼3: 55b)
- c. 얼우늘 므더니 너기며 동렬위 사르물 경만히 너기면(凌忽長者輕慢同列人, 번소8: 30a); ‘므더니’와 ‘경만히’가 유의어로 대비됨.

3. 5. 美醜性 平價副詞: 고비, 고이(鮮, 麗, 豐, 研, 娟, 好)~아름다비, 아름다이(美)~아랏다비, 아랏다이(嬌)↔더러비, 더러이(醜, 隔, 染, 汚, 穢, 비)~辱다이(辱)

이들은 美醜性에 관계된 부사로 먼저 ‘곱다, 고비’와 ‘아름답다, 아름다비’가 있다. ‘곱다’는 ‘고분 쫘’ (석6: 13b), ‘性 고분샤’ (월21: 211b), ‘고온 뜯’ (법2: 111b)처럼 외모, 심성, 가치평가에 쓰였는데 외모일 경우 공기하는 명사의 자질이 대개 [+여성]이다.

- (1) a. 고비 너기면 당다이 제 모미 더러보며(월7: 18a)
- b. 고이 히오 조하니로 그 우희 듭고(鮮白淨潔以覆其上, 법2: 140a)
- c. 艷: 고을 염, 妍: 고을 연(훈몽 하33)

그리고 ‘곱다’는 ‘곱다→곱이다*→고비다*→고이다→괴다’로 동사파생을 일으키고 뜻도 “娟, 麗→愛”로 전이되었으며 ‘괴다’는 다음 예처럼 능동(괴여)과 피동(괴여)에 다 쓰였다. 그런데 피동의 ‘괴다’는 ‘고이다; 寵’로도 쓰였으니 ‘고이다’는 “총애받다”는 뜻으로 고정되어 쓰였다.

- d. 괴여 爲我愛人/괴여 爲人愛我(解例本 合字解)/寵: 궐 퉁

(유합 하22)

e. 고이고 교종터 아니 흐며(夫寵而不驕, 소언4: 48b)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다이’는 현대의 ‘아름답다’가 “여성미나 자연미”만 묘사하는데 반해 (2)b의 ‘도홀 美’라는 釋과 c, d예들이 “좋다”의 뜻으로 해석되듯 “좋다”라는 의미장을 상당히 포괄했기에 ‘똥다, 도희’와도 유의적이며 ‘곱다, 고이’처럼 [+여성]의 명사와 공기하는 제약은 없었다. 오히려 여성적 미를 위한 단어는 e의 ‘아름답다, 아름다이; 嬌’인데 이것이 ‘아름답다’와 파생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2) a. 美는 아름다볼 씨니(석13: 9a)b. 美: 도홀 미(유합 상26)c. 經入德을 아름드비 讚歎호샤(월17: 93a)d. 嘉瑞는 아름다볼 祥瑞라(월2: 47b) cf. 嘉: 도홀 가(유합 상30)e. 아름다볼 저비는 집기슬게 드러 횃도눅다(嬌燕入簷廻, 두7: 34a)

‘아름-’의 어원을 양주동(1983: 110), 허웅(1975: 203)은 다음 a와 같은 명사 “아름; 私”으로, 유창돈(1971: 358)은 b의 예로 “알다*; 長, 善”의 명사형으로, 전재호(1987: 251)는 “알다; 知”의 명사형으로 보았는데 ‘아름; 私’설이 유력하다. 유창돈의 ‘알다*’는 용례가 b뿐이라 신빙성이 약하고 의미상으로도 “長”이 “美”로 변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며, 전재호의 “알다; 知” 기원설도 “知→美”의 변화 역시 납득이 어렵고 성조의 차이도 크니 ‘아·름·답-’은 平去平聲인데 ‘:알·다’는 상성으로 시작된다. 반면 양주동, 허웅의 ‘아름; 私’설은 “私→美”라는 의미확대가 가능하고 성조 비교에서 ‘아·름·과’ ‘아·름·답-’은 平去聲으로 일치된다. 한편 ‘아름; 私’의 부사로 c처럼 “사사롭다”는 뜻의 ‘아름더; 私’도 있으므로 ‘아름; 私’에 ‘-디다’를 붙여서는 “사사롭다”의 뜻으로 쓰고 ‘-답다’를 붙여서는 “아름답다”의 뜻으로 쓰게 되어 별개 접미사 첨가를 통한 의미파생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3) a. 제 모뎨 아름 삼디 아니 흐며(不私其身, 능6: 108a)b. 알은 거스란 그 아로뎨 브더니 너기고(長者任其長, 금삼4: 45b)c. 各各 아름더 受호니잇가(各各私受, 능1: 16b)

한편 ‘고비, 아름다비’의 반의어로는 ‘더럽다’의 부사 ‘더러비’가 있는데 (앞 (1)예문의 대비 참고) ‘더럽다’는 평가어 외에 감각어로는 다음 c처럼 시각성 감각부사인 ‘똥다, 좋다, 又又호다; 淸, 淨, 潔’의 반의어도 되고 현 대어와 달리 다음 d처럼 후각성 감각부사인 “냄새가 더럽다”는 뜻으로도 쓰여 의미장이 컸다. 그런데 ‘곱다’가 ‘곱이다*→고비다*→고이다→괴다’로 파생하였듯이 ‘더럽다’도 ‘더럽이다*→더러비다→더러이다’로 쓰였으며 ‘고

이다'가 '괴다'로 축약되었듯 '더러이다'도 b처럼 '더레이다'를 보여 '더레-'로의 축약의식을 보여 준다.

- (4) a. 어버의 일후를 더러비는다 흐느니(월8: 97a); 동사 '더러비다'.
- b. 듣그리 더레이(塵染, 법6: 57b); 동사 '더레이다'.
- c. 조흐니 더러우니를 묻디 아니흐야(無問淨穢, 능1: 32a)
- d. 내 더러우며 고름 흘러(身臭穢膿流, 원上二之二25a); “냄새”와 호응.
- e. 醜; 더러울 취(혼몽 하33, 유합 하52)
- f. 이 새 지브란 외다흐야 더러이 너기디 말라(陋此白屋非, 두15: 5a)

또한 <더러이>의 유의어로는 '辱드이'가 있다. 다음 a는 '더러이'와 인접유의어로 '辱드이'가 쓰여 이들의 유의성을 입증한다.

- (5) a. 처서피 辱드이 더러이 아니너겨(初辱不鄙, 법 序21b)

3. 6. 可否性 平價副詞: [어루~可히~니르, 니르](可)~시러, 시러곰(得)~[能히~잘](能)~足히(足)↔묻(否, 不)

이들은 可否性을 평가하는 부사이다. '어루, 可히, 시러'의 유의성은 유창돈(1971: 171)도 다루었고 남성우(1986: 80, 138, 139)는 이들의 동사인 '얼다~신다'~得하다'를 상론하고 부사 '어루~可히'만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이들을 종합하여 살핀다. 먼저 '어루~시러'는 동사 '얼다~신다'; 得'이 그대로 부사에서도 동의경쟁을 보인 것으로 '얼다'의 파생부사형 '얼+우→어두→어루'와 ㄷ변칙어인 '신다'의 부동사형 '실+어→시더→시러'가 파생부사로 전성된 것이다. '얼·다~:신·다'의 어간은 성조도 같은 上聲인데 이미 15세기에는 '얼다'가 빈도상 절대우세를 보이며 '신다'은 활용예가 다음 b정도가 확인될 뿐 희소하여 허웅(1975: 442)에서도 불구동사로 처리했으며 거의 파생부사 '시러'만 잔존한 상황이라 동의경쟁은 '얼다'의 승리로 끝난 상황이었다. 그 원인은 '신다'가 '신다'; 得'과 '신다'; 載'의 다의어라 단일 의미기능의 '얼다'에 비해 동의경쟁에서 기능부담이 커 '신다'는 어느 하나가 도태되기 쉽고 따라서 경쟁어가 있던 '신다'이 '얼다'에 흡수되고 '신다'만이 남게된 것이다. 또한 d처럼 '신다'보다 한자어 '得하다'를 절대우위로 쓴 것도 '신다'의 소멸의 원인이었을 것이다(남성우(1986: 139)의 통계 참고).

- (1) a. [얼다; 得, 獲] 벧날에 바리롤 어더(월천88)
- b. [신다; 得] ①明星 비취어늘 十八法 得히시며 十神力을 또 시르시니(월천79); 한자어 '得하다'와 '신다'가 對句로 변화를 주고 있음.

② 得은 시를씨라(훈언)

- c. [신다²; 載] 천량 만히 시러 王舍城으로 가며(석6: 15b)
 d. [得^하다; 得] 羅睺羅이 道理를 得^하야사 도라와(석6: 3b)

이렇게 ‘신다’의 소멸세에도 불구하고 부사에서는 ‘시러~어루’가 동의경쟁 중이었고 또한 한자어 ‘可히, 能히’와도 경쟁이었는데 현재는 고유어 ‘어루, 시러’가 한자어의 위세에 소멸되었다. 이들은 언해본들에서는 원문자 ‘得→시러, 시러곰/可→어루, 可히/能→能히’의 관계로 대응되는 편이다. 이들의 의미는 공통점이 많으나 의미초점의 차이도 있어 ‘어루, 可히’는 [+가부성]에 초점이 놓이며 ‘시러’는 ‘어루, 可히’보다는 ‘能히’와 더 가까워(위(7)a²에 참고) [+능력성]에 초점이 놓인다. 따라서 ‘어루 恭敬^하다’(석13: 45a)는 되어도 ‘시러 恭敬^하다.能히 恭敬^하다’는 어색하며 반면 ‘시러 듣다’(석9: 28b), ‘能히 對答^하다’(석13: 15a)는 [+능력성]의 표현인 바 ‘어루’가 쓰이기에는 어색하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지도 않아 ‘日月도 어루 떠러디고^하며’(석9: 26b)처럼 능력성의 구문에도 ‘어루’는 쓰여 ‘시러, 能히’와 결국 유의적임을 보여주니 다음 c²는 ‘能히~어루’의 동의성을 본문과 협주문이 입증한다. 먼저 1기의 예부터 살펴본다.

- (2) a¹ 제 뜨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나라(終不得伸其情者多矣, 훈언)
² 우리나라말로 옮겨써 퍼면 드를 사르미 다 시러 키 울월리니(월序 23b)
 b¹ 조라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석6: 11b)
² 功德을 어루 이기여 기리스볼려…可는 어루 可는 마리오(功德可勝讚哉, 월序9a 본문과 협주)
 c¹ 놀 더브러 무러사 하리며 뉘사 能히 對答^하려노(석13: 15a)
² 能히 다 몬^하리라…어루 다 몬 니르릴씨니라(월18: 10b 본문과 협주)
 d. 能히 보비잇는 짜해 나사가도 또 어루 시러 가리라(월14: 77a)

‘시러’는 1기에서만 주로 문중되고 2기부터는 예가 희소해지며 새로 ‘시러곰’으로 나타나는데 ‘시러, 시러곰’은 부정문에 출현하는 예가 매우 많고 a²처럼 긍정문에는 희소한 바 한문어법 ‘不得’에 끌린 결과로 보이며 반대로 ‘어루, 可히, 能히’는 부정문과 공기하는 예가 적다. 전자는 ‘시러’의 유의어로 후술할 ‘니르’의 현대어형 ‘이루’가 오늘날 ‘이루 못~’처럼 부정문에만 쓰이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대체로 ‘어루, 可히, 能히’가 “긍정적 가능”의 부사라면 ‘시러, 시러곰’은 “부정적 또는 반어법적 가능”의 부사라 하겠다. 위 d는 ‘어루 시러’로 유의인접된 예인데 이때 ‘시러 어루*’의 어순은

쓰이지 않아 ‘어루’가 ‘시러’보다 어순상 선행적이었다. 또한 1기에는 ‘시러, 어루, 能히’가 잘 쓰인 것과 달리 ‘可히’는 약세라 예가 귀하니 원문 ‘可’에 대해 ‘어루, 어로’로만 보여준다.

그런데 2기 杜諺에서는 ‘可히’도 잘 쓰이며 다음 c'같은 ‘시러’는 매우 적어 소멸세이고 대신 c'처럼 ‘시러곰’으로 나타나는데 그 쓰임은 c'같이 긍정문에서의 용례보다 ‘安得, 焉得, 不得’의 역어로 ‘엇대 시러곰~오?’, ‘시러곰~못~’식의 반어법 또는 부정문인 경우가 많아 1기에서의 ‘시러’의 부정문 경향을 잇고 있다.

- (3) a' 어루 호 남₇로써 괴오리라(可以一木支, 두6: 44a)
 - ² 집아래 어로 온 사리미 들리로소니(下可容百人, " 22a)
- b. 武侯₇ 祠堂을 可히 닛디 못₇리로소니(武侯祠堂不可忘, " 34b)
- c' 丹砂 무로물 시러 헛디 못₇노라(不得問丹砂, 두7: 5b)
 - ² 口₇츠매 시러곰 金門에 進獻₇호₇는다(終得獻金門, " 20a)
- ³ 엇대 시러곰 놀애 브르며 조오로물 호들히 히리오(安得酣歌眠, 두6: 36b)
- ⁴ 엇대 시러곰 느스기 드리디 아니₇리오(焉得不低垂, " 43b)
- ⁵ 生理₇는 시러곰 니르디 못₇리로다(生理不得論, " 49b)
- d. 츄마 能히 느홀 對₇하야서 일벗₇는다(力忍能對面爲盜賊, " 42a)

3, 4기에는 문헌마다 성격이 다르니 다음 예처럼 翻小는 意譯體라 원문 ‘可, 得’은 ‘可히, 시러곰’으로의 번역이 빠져 있고 ‘能’은 ‘능히, 룡히’로 번역하였는데 小諺는 直譯體답게 이들 원문자에 대해 모두 철저히 ‘可히, 시러곰, 能히’로 대역하고 있다.

- (4) a. 엇디 *저른 아히들호로(豈可使小兒輩, 번소9: 7a); * ‘可’의 번역어 없음.
 - 엇디 可히 겹은 아히들로 호₇여금(" , 소언6: 6b)
- b. 횡혀 *사라이시면 나는 후에 조식이 이시려니(幸而得存我後當有子, 번소9: 71b); * ‘得’의 번역어 없음.
 - 횡혀 시러곰 이시면 나는 후에 맞당히 조식이 이시려니(" , 소언6: 66a)
- c. 스스로 능히 우후로 츄자가(自能辱向上去, 번소8: 5b)
 - 스스로 能히 우후로 츄자 向₇하야 가(" , 소언5: 86a)

그리하여 3, 4기에는 ‘시러, 어루’가 이미 찾아보기 어려워 2기이래 약세임을 입증하며 ‘어루’는 다음 d처럼 4기 예나 e처럼 근대의 예가 드물게 있어 한자어 ‘可히’에 눌러 입말에서나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시러’도 ‘시러

곰'으로 대체되었다고 하겠다.

- d. 어로 사랑터 물흔 고대 나사가(不可思量處, 선가귀감언해 상16b)
- e. 어루 맛당하니이다(王郎返魂傳7)

이제 특별히 '시러, 어루, 가히, 능히, 시러곰'의 빈도를 가장 각축을 보인 1, 2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

	석6	석9	석13	월序	월18	계	두6	두7	두10	두11	두15	계
① 어루	2	2	1	2	3	10	4		3	1	2	10
可히						0	4	1	4	6	4	19
② 시러			1		1	2		1			1	2
시러곰						0	5		5	3	2	15
③ 능히			1	2	1	7	4	3	6	5	4	22

이들은 원문 '可, 得, 能'에 규칙적으로 대역된 특정 문헌어의 빈도라 언 어현실의 빈도와는 거리가 있으나 1기에는 '可히, 시러곰'이 귀하다가 2기부터 '어루, 시러' 대신 '可히, 시러곰'이 득세한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에 이들의 유의어로는 '니르다, 니르다; 謂'의 어간형부사인 '니르, 니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不可謂"라는 뜻의 '~못 니르~' '니르~못~'의 문맥에서 부사로 발달해 '어루, 능히'등과 유의를 이루어 부정문에만 쓰였는데 현대에도 '이루'로 변해 '이루 못~'처럼 부정문에 쓰인다. 다음 c는 '어루, 니르'로 유의인접도 보인다.

- (6) a. 衆生濟渡호믈 물 니르 혜에 호시고 命終호야(월1: 19a)
- b. 正機正行호닌 니르 드디 호호시릴씨(正機正行不可勝學, 법2: 173b)
- c. 엇데 어루 니르 다오리오(何可勝窮哉, 법5: 42a)

또다른 이들의 유의어로는 '잘, 足히'가 있다. 앞 3.3.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잘'은 '能히, 시러'와도 가까와 다음 a²는 원문 '能'에 '시러 잘'을 보이므로 이들의 유의성을 입증하며 '足히'는 [+만족성]을 주의미로 하나 [+가능성]의 의미로도 쓰였다.

- (7) a¹ 幻術을 잘 호더니(석6: 30b)/能: 잘홀 능(石千8)
- a² 모딘 득명을 시러 잘 발명 호호거든(不能自伸者, 여씨향약35b)
- b. 犬戎을 엇데 호 吞滅호리오(犬戎何足吞, 두6: 50b)

이상의 ‘어루, 시러, 可히, 能히’류의 반의어는 단일어로 ‘不可히, 不能히’와 같은 단어의 쓰임도 없고 고유어에서도 반의어로 지적할 만한 것이 없으나 대신 ‘못’과 공기하여 ‘어루~못~’ ‘시러~못~’처럼 통사적 반의법을 취하는 점과 한문에서도 “可↔否, 可↔不可”가 반의어를 이룬다는 점에서 “否, 不可”에 해당하는 ‘못, 아니’를 의미상의 반의어로 볼 수 있다. ‘못’은 오늘날 부정부사로 따로 설정하나 부정적 가능성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부사라는 점에서는 ‘어루, 시러, 可히, 能히’류는 긍정부사, ‘못, 아니’는 부정부사라고 대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3. 7. 難易性 平價副詞: 수비, 수이~쉽사리(易) ↔어려비, 어렵이~어렵사리~썰비~難히(難)

이들은 難易性의 평가부사로 ‘쉽다, 쉽살하다’의 부사 ‘수비, 쉽사리’와 그 반의어 ‘어렵다, 어렵살하다, 썰다’의 부사 ‘어려비, 어렵사리, 썰비’ 및 한자어 ‘難히’가 있다. 이들은 앞 항의 가능성 평가부사와도 유의적이니 “가능하다”와 “쉽다”, “불가능하다”와 “어렵다”는 밀접하기 때문이다.

- (1) a. 허튀를 수이 가도힐홀시라(容易收病脚, 두14: 2a)
 b. 쉽사리 病흔 허튀를 가도혀노라(〃 위 본문의 협주)
 cf. 敢히 교만하고 쉽살함을 내디말라(不敢生驕易, 소언5: 20a)
- (2) a. 어려이 사라 오늬나래 니르러 오니(苟活到今日, 두8: 57a)
 b. 이대도록; 어렵사리 니르옵시느고(첩해신어5: 21b); 중세에는 미확인됨
 cf. 어렵살흔 더를 ㄴ초 디내여(備經險阻, 소언6: 18a)
 c. 아쳐러 게으른 뜨들 머거 難히 맞늬 想과(월17: 14a)

한편 1기에서만 보이는 ‘썰다’는 “①어렵다; 難”와 “②꺼리다; 忌”의 다의어로 쓰여 ①은 ‘어렵다’와도 동의경쟁어인데 1기 이후 단일의미어 ‘어렵다’에 ①을 넘기고 ②만 남아 쓰게되어 오늘날 형태가 변한 ‘썰비다*→썰이다*→꺼리다’로 남아있다. 이 단어는 중세에서 “걸다; 掛”는 뜻의 ‘걸다’; 掛’과 “걸리다, 막히다; 滯, 拘, 碍”는 뜻의 ‘걸다’; 滯’와 이의 파생형 ‘걸위다, 걸이다’ 및 ‘썰썰하다; 澁’와도 동근파생어로 보이니 이는 의미론적으로 “막힘, 걸림; 滯, 拘, 碍”→“妨害, 障碍”→“어려움; 難”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의 ‘걸다’; 掛’의 다의파생이 ‘걸다’; 滯’를 이루고 더 나아가 ㅅ→시으로의 된소리화에 의한 어사분화로 ‘썰다’까지 파생시켰으니 현대어 ‘걸리다, 꺼리다, 거리끼다, 걸걸하다, 꺼림칙하다’는 모두 동일어족으로 보인다. 현대어 ‘거리끼다’의 중세형 ‘걸씨다’도 ‘걸다’와 ‘씨다; 挾’의 합성어이다.

- (3) a. [걸다¹] 이불 벼락매 거니라(口掛壁, 금삼4: 13b)
 b. [걸다²] 공에 드러며 적에 걸어(沈空滯寂, 원上二之三38b)
 c. [걸위다] 解脫은 버슬씨니 아모디도 마근디 업서 든굼뻬 걸위디
몬홀씨라(월序8a)
 d. [떨떨하다] 목이 몰라 떨떨하여 아팍고(咽乾澁痛, 痘瘡集要 상
 59b)
 e. [걸끼다] 공에 걸끼디 아니 흐니(不滯空, 금삼3: 4b)
 f. [뺏다] 釋迦牟尼佛이 甚히 뺏본 쉽디 몬홀 이를 잘하야(월7:
 77a); ‘뺏본’ 뒤에 ‘쉽디 몬홀’이 동의반복되어 ‘뺏다↔쉽다’관계를
 를 입증.
 [떨빔] 天人濟渡호몰 떨빔 아니호미 당다이 나 존하리라(월1:
 17a)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국어 성상부사 중에서 평가부사의 유의어와 반의어에 따른 동의경쟁사적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부사는 인간의 도덕기준, 욕구, 효용가치에 따라 사물이나 인간 성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부사로 본고에서는 ①眞僞, ②是非, ③善惡, ④貴賤, ⑤美醜, ⑥可否, ⑦難易라는 7개 범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분류는 앞으로 가치론, 인식론의 관점에서 더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2) 중세 평가부사는 조어법상 ‘-이’ 접미사계 파생부사가 압도적이거나 오늘날 이들 다수가 소멸되었는데 (거츠리, 올히, 어디리, 도히, 모디리, 구지, 사오나이, 놀아이, 아릅드이, 더러이, 어러이, 썰빔…등) 이는 다른 부사에서조차 마찬가지로서 ‘-이’계 파생부사의 폐어화 현상(이승욱(1984) 참고) 때문이다. 기타 소멸된 단어로는 ‘이대, 외오, 어루, 시러’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현대국어에까지 잔존한 평가부사도 ‘고디, 실업시, 업시, 그르(→그릇), 바르(→바로), 업시, 업수이, 貴히, 고이, 可히, 能히, 니르(→이루), 수이, 쉽사리, 어렵사리’ 등 상당하다. 중세때 이미 빈도높게 쓰이던 한자어 ‘貴히, 正히, 足히, 可히, 能히’ 등은 현대에도 잘 쓰인다.

(3) 의미파생(다의화) 관련 단어로 15세기에는 “拙劣”의 뜻이다가 16세기에는 “暴惡”의 뜻으로 변한 ‘사오남다, 사오나이’가 있다. 두 가지 뜻이 확인되는 다의어로는 “①나쁘다, ②부족하다”의 ‘남비다, 남비’, “①괜찮다, ②소홀하다”의 ‘므던하다, 므더니’, “①계으르다, ②소홀하다”의 ‘디만하다, 디마니’ 등이 있는데 이들은 후에 다의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와의 동의경쟁으로 소멸되거나 단일의미어로 변하였다. ‘진딧~짐짓’은

“眞→故意”라는 의미분화로 어형분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음이 의어나 다의어는 동음충돌로 인한 혼동이나 의미기능 부담의 과다로 인해 불안정하게 되어 어느 한쪽 단어나 의미기능이 소멸되기 쉬운데 그런 예로 ‘실다^{1,2}, 시러^{1,2}; 得, 載’, ‘거칠다^{1,2}, 거츠리^{1,2}; 荒, 虛’, ‘짧다^{1,2}; 難, 忌’, ‘외오^{1,2}; 左, 非’의 예를 들 수 있다.

(4) 현대보다 의미장이 컸던 단어로 ‘어딜다, 어디리’는 오늘날 인성평가어로만 쓰이나 중세에는 ‘어딘 蓮花, 어딘 쟁’처럼 무정명사와 공기할 수 있었다. ‘아름답다’도 “여성적 미”외에 “좋다”라는 뜻을 지녔다. ‘더럽다’도 美醜의 관점에서 쓰인 평가부사 외에 감각부사로 시각성의 “깨끗하다”의 반의어와 후각성의 “더러운 내(냄새)”라는 표현으로 쓰여 현대보다 의미장이 컸다.

(5) 어원적으로 ‘호갓’은 “호(一)+갓(物)”, ‘아니완하다, 아니완하다’는 “아니(不)+원하다(明)→暗→惡”, 현대의 ‘꺼리다’는 ‘짧+이+다’, ‘짐짓’은 ‘진딧’에서 유래되는 것임을 추론하였다.

이상의 논의에는 미처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도 예상되는 바 이들 어휘군은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국어에서도 이러한 평가형용사나 평가부사 어휘군의 광범위한 수집과 의미분석이 이루어져 평가형용사나 평가부사의 범주가 정밀히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고정의(1980) ‘15세기 국어의 부사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고정의(1985) ‘중세국어 부사의 통사특징(1),’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
 김경훈(1977) ‘국어 부사수식 연구,’ 국어연구 37.
 김미형(1989) ‘형용사의 의미유형과 구문의 차이,’ 제효 이용주 박사 회갑 기념논총.
 김상대(1988) ‘형용사의 의미 특성,’ 선청어문 16·17,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영희(1976)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 어학연구 12-2.
 김완진(1973) ‘국어 어휘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김종록(1990) ‘중세국어 부사형성 접사-이/히, 오/우-에 관한 연구,’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 언어연구회.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남성우(1985) 국어 의미론, 영언문화사.
 남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탑출판사.

- 남풍현(1968) '15세기 언해문헌에 나타난 정음표기의 중국계 차용어사 고찰,' 국어국문학 39·40.
- 리득춘(1987)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 출판부, 만주 연변.
- 문금현(1989) '현대국어 유의어의 연구,' 국어연구 88.
- 민현식(1989a) '중세국어부사 유의어의 문체적 전환과 레지스터,' 제효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총, 한샘.
- 민현식(1989b) '중세국어 처소부사의 유의어에 대하여,' 정연찬 교수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민현식(1989c) '중세국어 시간부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1a).
- 민현식(1990) '부사 연구사,' 기곡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민현식(1991a) 국어의 사상과 시간부사, 개문사.
- 민현식(1991b) '부사 분류론,' 이승욱 교수 회갑기념논총, 서강대.
- 민현식(1992a)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1)-감각부사를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07.
- 민현식(1992b)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3)-존재부사, 심리부사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77·78.
-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박희식(1984) '중세국어의 부사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3.
- 배해수(1990) '국어 내용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심재기(1971) "국어의 동의중복 현상에 대하여,' 서울대 교양과정부논문문집 3.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3.
- 심재기(1975)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양인석(1975) '한국어 부사의 의미(1),' 어학교육 7, 전남대.
- 양주동(1965, 1983) 고가 연구, 일조각.
-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이광정(1983) '15세기 국어 부사형어미-게, 이-에 대하여,' 국어교육 44·45.
- 이기문(1965) '근세 중국어 차용어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8-2, 고려대.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석주(1989) '반의어에 대한 고찰,' 제효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논총, 한샘.
- 이승욱(1967) '중기국어의 부사 연구,' 논문집 1, 단국대.
- 이승욱(1984) '중세어의 '이' 부사화와 일부의 폐어현상,' 동양학 14, 단국대
- 이환묵(1979) '부사론(Ⅰ),' 어학교육 10, 전남대.
- 전재호(1987) 국어 어휘사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조병태(1987) '영어부사의 연구,' 어학연구 23-3.
- 조항범(1984) '국어 유의어의 통시적 고찰,' 국어연구 58.

- 최은규(1985) '현대국어 유의어의 의미구조 연구,' 국어연구 67.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 4, 경북대.
 홍사만(1981) '국어 성상형용사 소고,' 동양문화연구 8, 경북대.
 Huang, S. F. (1975) *A Study of Adverbs*, Mouton, The Hague.
 Nida, E. A.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The Hague.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Quirk, R.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ABSTRACT

A Study in the State Adverbs of Middle Korean (2) -With Reference to Evaluation Adverbs-

Hyun-sik Min

The study of adverbs correlates with the study of verbs and adjectives which the adverbs modify. This paper take into account the synonyms and antonyms of evaluation adverbs correlating to the adjectives within the limits of Middle Korean.

Evaluation adverbs belong to the state adverbs and are defined as the adverbs which evaluate the truth and falsehood, right and wrong, good and evil, noble and mean, beauty and dirty, able and unable, hardness and easiness etc.

From the viewpoint of word-formation the overwhelming mass of evaluation adverbs are derivated by the adjunction of '-i' (-ㅇ) suffix to the roots of adjectives. And a large number of the overwhelming mass disappeared at present [ex.: olhi, kodisigi, tyohi, saonai, modiri, kuci, aniwanni, timani etc.]. But the part of it continue to exist till now [ex.: koi, kahi, sui, swipsari, nunghi etc.]. The polysemous word of evaluation adverbs partially

became monosemous word in consequence of the synonymy conflict with another synonymous word [ex.: saonapta, dimanhada, natpuda, mudonhada]. After this the same study within the limits of Modern Korean should be achieved.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